

People meet in architecture

2010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Venice Biennale 2010 — 12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2010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은 가즈요 세지마(Kazuyo Sejima)를 총감독으로 People meet in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9일 공식 개막하여 11월 21일까지 열린다. 베니스 지아르니 공원(Giardini della Biennale)에 대한민국의 한국관을 비롯하여 29개국의 국가관과 아르세날레(Arsenale) 전시장에 12개국의 국가관이 참여하며, 총감독 세지마가 초대한 건축가들과 작가들이 전체 주제 아래에서 개별 작업을 통해 현시대 건축의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다.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0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 권문성 성균관대 교수가 선정되었고, 경기대학교 이상구 교수, 건축가 조정구(구가건축 대표), 서울 시립대학교 이충기 교수, 건축가 신승수(디자인그룹 오즈 대표), 건축가 하태석(아이아크 공동대표) 등 5명이 작가로 선정되어 전



한국관 전시 포스터.

베니스에서 건축을 만나다

미술전에 비해 주목 받지 못하고, 더구나 국제적으로 악화된 경제난과 국내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2010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베니스비엔날레 공식개막일은 8월 29일이지만,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의 프리뷰 기간 동안 각 국가관들은 기자들과 초청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닝 행사를 가진다. 한국관의 오프닝은 8월 27일 오후 4시 30분, 드디어 수백 명의 관람객의 축하 속에서 공식 개막을 하였다. 대한민국 건축을 세계에 소개하는 좋은 기회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커미셔너와 작가 그리고 계속되는 철야 작업 속에 전시를 준비한 스텝들을 위한 날이기도 했다. 베니스에서 한국관의 전시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스텝들은 한국과 다르게 흘러가는 베니스의 시간에 익숙해져야 했다. 베니스에서는 작은 재료를 하나 구입하는 것부터 물건을 운반하거나 인쇄를 하는 것까지 모두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한 달 전부터 베니스에서 땀 흘리며 고생한 목수님들 덕분에 한옥은 일찍이 한국관에 자

리를 잡고, 비엔날레의 다른 국가관 공사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한옥이 지어지는 중간에도 각국의 공사팀, 스텝들은 한국관을 방문하여 나사와 볼트 하나 없이 견고하게 구축되는 한옥의 공법과 공간감에 감탄하고 돌아갔다. 한국관에서 한옥이 자리를 잡고 작가들의 전시물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찾아갈 때 한옥은 이미 한국관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마도 한국관 자체가 한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였고, 한옥 역시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일 것이다. 베니스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한옥은 전시 시설물이기 이전에 스텝들의 휴식 장소, 때로는 회의 장소가 되었다. 한밤중에 스텝들은 한옥에 올라 밥을 먹고 늦은 작업 이후 잠을 청했다.

한국관은 한옥을 중심으로 5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박스 기사 참조) 한옥과 다섯 작가와의 싱크로는 처음부터 걱정거리였다. 한옥은 한옥 자체로 완결되고 다른 작품들도 그 자체로 완결될 수밖에 없었다. 해법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한옥이 가진 넓은 포용력을 기대하며, 관람객들이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작품 사이의 어색함은 전시의 거리에 맡겨 두고, 작품들이

시를 준비하였다. 이밖에 서도호 작가가 주제전에 초청받아 서아키텍트의 서울호 건축가와 공동 작업을 하였다. 2010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오늘날 서울의 주거문화의 원형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 준다. 사진 | 문정식(건축 사진가, 별도 표기 외)

RE,PLACE,ING이란 주제 아래에서 읽혀지도록 해야 했다. 전시 준비가 마무리 될 때쯤 개인적으로 한국관에 적응이 되었지만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매일 반갑게 만나는 이 한옥을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베니스에서 한옥을 마주한 모든 한국인들이 가지게 될 공통된 의문이며, 또한 무거운 과제일 것이다.

베니스비엔날레의 국가관 ㉔ 베니스비엔날레의 전시는 크게 지아르니 공원(Giardini della Biennale, 비엔날레 공원이라 고도 부른다)과 아르세날레(Arsenale)에서 이루어진다. 지아르니 공원에는 한국관을 포함하여 29개국의 국가관이 독립적으로 흩어져 있고, 아르세날레 전시장에는 12개의 국가들이 공간을 나누어 전시장으로 쓰고 있다. 두 전시장 모두 각각의 공간적인 장점은 가진 듯하다. 지아르니에서는 공원을 돌아다니며 국가관들을 선택적으로 관람하고, 중앙의 주제관에서 세지마가 초청한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 있다. 지아르니 공원의 개별 국가관들은 모두 건물 자체가 특색 있는 일종의 작품이다. 비엔날레 관람자들은 보고 싶은 국가관을 방문하고 나와서 공원에서 쉬기도 한다. 반면, 아르세날레에서는 긴 전시장 건물에서

연속적으로 초청 작가들의 전시와 국가관의 전시를 관람하게 된다. 아르세날레 전시장은 그 자체가 역사를 가진 전시 공간으로 한때 베니스의 경제와 군사력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으며, 배의 부속품을 제작하던 공장 건물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군기지로 쓰였다. 처음 방문하는 관람자는 아르세날레 전시장이 풍기는 시간의 흔적과 내부의 규모에 시선을 빼앗길 지도 모른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한 국가관들은 세지마의 주제 'People Meet in Architecture'를 깊게 고민한 듯하다. 한국관이 한옥을 통해 관람객들이 만나고 휴식하길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국가관들이 전시 공간 자체에서 사람들이 건축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전시물과 관람객의 경계를 지우려고 한 흔적이 많았으며, 전시물 자체가 관람자에게 일종의 경험이자 과정의 기록이 되도록 의도하기도 했다.

비록 한정된 지면이지만, 지아르니와 아르세날레의 국가관 전시와 주제관 전시 중 인상 깊었던 몇 개를 소개한다. 올 베니스비엔날레 주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들이 혹은 작가들이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를 음미해 보자.

글 | 배문규(2010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코디네이터)



지아르니 공원(Giardini della Biennale)의 전시

네덜란드 (사진 1) | “이 빌딩은 39년 이상 비어 있었다.(THIS BUILDING HAS BEEN VACANT FOR MORE THAN 39 YEARS)”라는 문구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네덜란드관에 들어서면 비어 있는 텅 빈 공간을 만나며, 2층을 만들고 있는 조각난 스티로폼 바닥들 사이로 떨어지는 빛을 보게 된다.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에 계단을 오르면 스티로폼 모형의 도시가 펼쳐진다. 이상 도시의 모형인지, 실제 도시의 모형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도시 모형이 2층 공간을 꽉 메우고 있다. “Mixed empty building in city...” 스텝의 한마디에 전시내용이 조금 이해되는 듯하다. 이 모형은 ‘Vacant NL, where architecture meets ideas’로 네덜란드관의 주제이며, 오늘날 어려운 현실 속에 정치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네덜란드 공공 건물들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사진 | 배문규)

3개국 전시관(Nordic Countries : Finland, Norway and Sweden) (사진 2) | 전시장 내부의 나무 때문에 안과 밖의 구분이 무의미한 이 전시장에서 어른들은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뛰어 논다. ‘Stay in Touch’란 주제는 건축이 인간의 관계 맺기를 이어주고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전시장 내의 풍경으로 드러내고 있다. 관람객들에게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을 내어주며 뒤로 물러나 있는 전

1	4
2	5
3	6

시물이 인상 깊다.(사진 배문규)

러시아 (사진 3) | 오늘날 세계 각국의 산업화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 문제들은 건축계가 당면한 문제이다. 러시아는 탈산업화 과정에서 황폐해져 가는 도시의 소생을 위해 한 도시에서 벌어진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Factory Russia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탈산업화 과정을 겪는 수백 개 도시들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 속에 메인 전시 공간은 동화 속 공간을 연상시킨다. 원형 공간의 벽을 둘러싼 그림과 은은하게 비치는 바닥의 재질로 관람자로 하여금 'Factory Russia 프로젝트'를 통한 비전을 연상시킨다.

일본 (사진 4) | 한국관과 가장 가까이 이웃해 있어서였을까? 솔직히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은근히 신경 쓰인 것도 사실이다. 올해 일본관은 기타야마(Kitayama)가 커미셔너를 맡고, 'Tokyo Metabolizing'이라는 주제로 츠카모토(Tsukamoto)와 니시자와(Nishizawa)가 전시를 준비했다. 도쿄는 독립적인 건물들과 그것들의 개별적인 변화들로 도시 모습을 이룬다. 'The Metabolizing City'는 살아있는 조직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주며, 전시장 내에 맥박 소리와 신비스러운 소리를 엮어 음향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1/20의 아틀리에 Bow-Wow 모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관들이 전시물 혹은 전시 공간을 통해 관람객과의 경계를 허물려고 노력한 반면 일본관은 경계를 더욱 쌓는다는 느낌이었다.

영국 (사진 5) | 영국관은 입구에서부터 세지마의 주제를 알리는 듯하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관람객의 스탠드가 마주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휴식하며,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마치 관람객이 프레스(press)가 되어 여기서 비엔날레 전시를 기록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스



탠드는 우드로 구축되었고, 스탠드의 하부 공간은 다른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탠드의 아이디어가 전체 전시 콘텐츠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호주 (사진 6) | 금년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에서 이미지만이 기억에 남는 국가관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주관을 말할지도 모른다. 호주관은 'Now + When

Australian Urbanism'이라는 주제로 미래는 무엇이며 어떤 모습일지를 묻는다. 이 물음으로 'Now'는 지금의 시드니와 멜버른 등의 도시 모습과 호주 서부의 비도시 지역을 3D 입체 기술 영상을 통해 눈앞에 펼쳐 준다. 'When'은 2050년의 도시 환경 모습을 3D로 보여 준다. 3D 기술을 건축 전시에 접목한 점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오렌지





색을 사용한 입체적 로고를 모든 것에 일관되게 사용한 점은 전시 환경에서 완성도를 높였다.

이스라엘 (사진 7) | 이스라엘관은 'Kibbutz'라는 이스라엘 농업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건축의 역할을 다룬다. 체계와 전시장을 찾은 관람자는 키부츠의 유토피아적인 상황들이 담긴 종이 의자에 앉아 관련된 영상을 본다. 키부츠가 오늘날 도시의 실험적 구조로 받아들여질지 잠시 생각할 만한 담론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Kibbutz에 내재되어있는 공동체의 의미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은 친숙한 느낌이다.(사진 배문규)

그리스 (사진 8) | 많은 국가관들이 도시 문제를 다루며 건축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것에 반해 그리스관에서는 도시화의 부작용과 함께 시골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듯하다. 그 해법은 땅을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생명이 넘치도록 만드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스관에 자리 잡고 있는 건축물 'The Ark project'는 씨앗을 모으고 유전적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다. 마치 생태 연구가의 집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 듯하다. 곤충을 닮은 유기적 형상에 우드로 짜맞추어진 집은 습지 어디에 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아르세날레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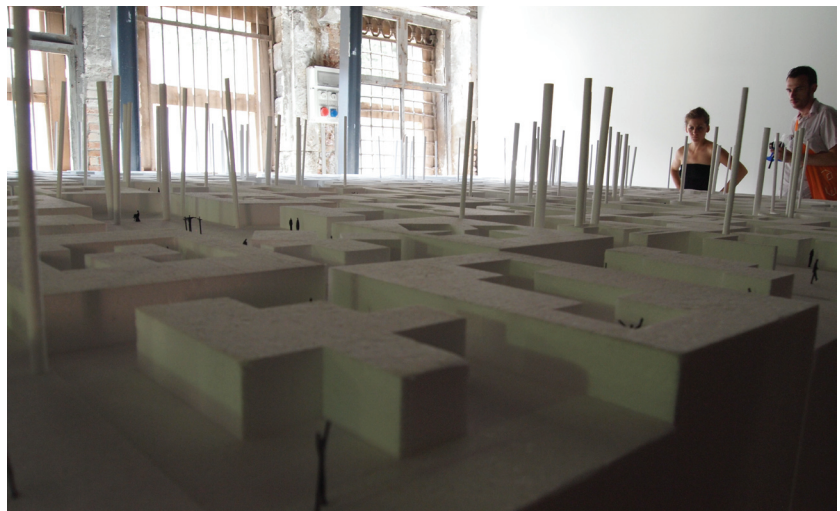
바레인 (사진 9) | 2010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관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바레인관은 아르세날레 전시장에 있다. 전시장에 들

7	9
8	10
	11

어서면 처음 만나는 것은 어부의 판자집 (fisher's hut) 3채와 집들을 이어주는 데크 바닥이다. 각 집의 모니터에는 이 판자집의 주인인 어부가 알아듣기 힘든 말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Reclaim 은 해안에서 일어나는 개간에 대한 사회 정치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공공 공간으로서 해안의 가치, 생태적 가치, 바다 문화의 가치, 그리고 평범한 어부가 생각하는 가치이다. 바레인의 전시 컨셉트는 한옥을 전시장에 소개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만남을 유도한 한국관과 닮아 있다. 두 국가관 모두 집을 1대 1의 스케일로 전시장에 짓고, 전시물이 아닌 관람객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차이는, 두 공간이 전시장의 전체나 부분이나가 아니라 관람객이 이들 공간을 바라보며 느낄 시선의 차이와 디테일 일 것이다. 바레인의 집은 원래 그 집에 있었을 것만 같은 낡은 양탄자와 전화기,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디테일한 가구들의 소품은 '집'을 '집'처럼 만들어 주어 관람객을 한층 더 끌어들이는 듯하다. (사진 배문규)

크로아티아 (사진 10) | 크로아티아의 전시장에 들어서면 텅 빈 공간에 박스들만 보인다. 이 박스들의 윗면은 일종의 맵(map)을 만들며,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소모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모두가 전시과정에 놓여 있는 듯하다. 크로아티아의 국가관은 실제로 베니스에 없다. 이에 크로아티아의 건축가는 'floating pavilion'을 제안했다. 10m×20m×3m의 규모의 계획안만으로 구축되어 아드리아해를 건너고 있다. 이는 진행 중이며, 과정은 아르세날레 크로아티아 전시장의 모니터로 보여진다. (사진 배문규)

아르헨티나 (사진 11) | 아르헨티나 전시장에 보이는 전시물은 없다. 관람자는 프





12	15
13	16
14	

로젝터를 통해 전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People meet in Architecture'라는 주제를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전시 공간에 펼친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인상적이다.

작가 주제 전시

이시가미 준야(Junya, ishigami) (사진 12)

2010년 베니스비엔날레 작가 황금사자상은 이시가미 준야가 수상하였다. 그는 2008년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의 전시를 맡았었으며, 올해는 세지마의 초청으로 주제 전시에 참여하여 'Architecture as air'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2008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의 작업과 건축에 대한 그의 고민을 알고 있다면 이번 전시의 작품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는 건축의 내외부 경계를 허물고 구조적 모호함을 넘어 'new architectural transparency'를 추구한다. 이 작품은 공간과 구조의 경계를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로서 존재하는 매시브(massive)한 4개의 기둥 외의 텅 빈 공간에는 공간의 흔적만이 그려지고 공기만이 채워져 있을 뿐이다. 1974년생의 이 대단한 젊은 건축가의 이름을 모른다면, 이 전시 공간은 그냥 지나칠지도.(아르세날레 전시장, 사진 출처 <http://www.designboom.com>)

이토 토요(Toyo Ito & Associates) (사진 13)

이토 토요는 타이완에서 진행중인 'Taichung Metropolitan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의 디자인 과정을 소개한다. 전체적인 스터디 모형, 음향 실험을 위한 메인홀 스터디 모형과 도면, 다이어그램 등이 전시된다. 2004년 소개된 'emerging grid'의 컨셉트를 발전시켜 다양한 프로그램에 반응하여 동굴과 같은 공간이 창출된

다.(아르세날레 전시장, 사진 배문규)

Aldo Cibic (사진 14) | 'Rethinking Happiness'라는 주제로 커뮤니티, 캠퍼스, 상업가, 도심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는 마을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자체에서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지아르니 공원내 주제관)

서도호+서아키텍트(Do ho Suh + Suh Architects(Eulho Suh and KyungEn Kim)) (사진 15) | 떠 있는 블루의 파사드는 지아르니 주제관에서 단연 눈에 띈다. 서도호 작가의 현재 뉴욕 집과 한국의 집, 베니스의 전형적인 주택의 파사드를 구성하여 푸른 투명한 천으로 나타내었다. 작가의 독창성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것은 이 파사드가 수평으로 관람객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다. 파사드의 현관은 초대이며 접근을 암시하지만, 그 곳은 떠다니는 꿈과 영원인 듯하다. 바닥은 라미네이트 패널로 떠 있는 파사드의 그림자이며 관람자가 서 있는 현실이다. 이 그림자가 파사드와 같은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꿈과 현실 사이에 사람들이 놓일 뿐이다. (지아르니 공원내 주제관)

Transsolar & Tetsuo Kondo Architects (사진 16) | 이들 작가들의 작품인 'Cloudscapes'는 아르세날레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방문객은 휘어진 램프를 통해 전시장 4.3m 높이까지 걸어가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름을 만지고 느낄 수 있다. 작가들은 관람자에게 구름 속을 걷는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 구름은 수증기와 압축된 물방울로 만들어지며, 전시장 내 위쪽과 아래쪽의 대기는 빛, 온도, 습도를 다르게 가지고 있다.(아르세날레 전시장) ㉔



한국관

한국관

전체 주제 ‘people meet in architecture’에 따라 한국관 커미셔너 권문성 교수가 참여 건축가들과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선정된 주제는 ‘RE.PLACE.ING -Documentary of Changing Metropolis SEOUL’로,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 도시 서울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도시 조직이 지워지고 새롭게 대체된 아파트들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삶의 형상들이 만들어 내는 불협화음과 균형들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한국관은 베니스 지아르니의 주전시관 밀집 지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관에 이웃해 있어 공교롭게도 구한말 열강의 틈

바구니에 끼어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낮은 천장과 유리로 된 외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한국 전시관이 있다는 존재감은 자랑할 만하다.

한국관의 전시는 유리 외벽을 모두 내부 벽으로 막아 전시 벽으로 이용하였던 기존의 방법을 버리고 과감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도록 함으로써 작고 좁은 전시 공간을 최대한 크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시 공간의 구성은 크게 주제와 관련된 출입구 정면과, 우측 공간의 도큐멘터리 전시와 좌측의 프로젝트 프로포잘(project proposal) 전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은 전통적 주거 공간인 한옥과 그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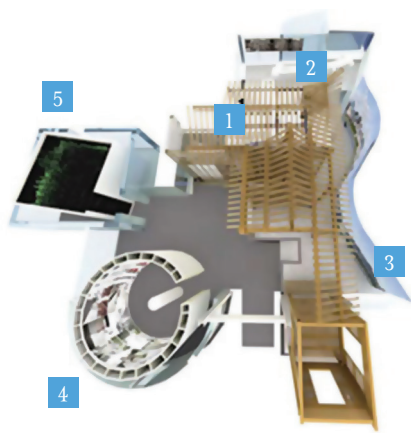
급속하게 대체하고 있는 아파트 관련 기록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관의 건축가는 전시 순서에 따라 이상구, 조정구, 이충기, 신승수, 하태석 다섯 명이 참여하였고 중앙의 한옥 부분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면하여 전시를 구성하였다.

중앙부의 한옥은 75년 정도 된 서울의 고가를 해체, 가공하여 목조 골조만 베니스로 가져와 조립한 것으로, 전시 및 휴게 공간으로 관람객이 실제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출입구 정면의 한옥 뒤편에 자리한 이상구의 전시(LIVING CITY, SEOUL)는 한옥 밀집 지역인 경북



(위) 한국관 외관, (아래 왼쪽부터) 한국관 내부 전경, 개막식, 리셉션.



← <전시 공간 구성>

1. Hanok — People Meet in Korean Pavilion, LIVING CITY, SEOUL — Living Forms in the Living City
2. LIVING FORMS — Living Forms in the Living City
3. APARTMENT CITY, SEOUL — RE.PLACE,ING by Apartment,
4. REPLACING PUBLIC SPACE — Urban space bar : Extending Individual Domain
5. DIFFERENTIAL LIFE INTEGRAL CITY — Collective intelligence Urbanism

궁 좌측의 서촌 지역 일부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대형 지도와 모니터에 표현하였고 조정구(LIVING FORMS)는 대형 지도의 나머지 부분과 지속적으로 기록해 온 도시 한옥 주거 밀집 지역의 도면과 일부 모형을 전시하였으며, 필자(APARTMENT CITY, SEOUL)는 우측 곡면부 벽을 이용하여 아파트로 대체된 서울의 양적, 질

적 변화와 광고, 문화 그리고 다양하고 거대한 단지 모습들에 대한 풍경을 전시하였다. 신승수(REPLACING PUBLIC SPACE)는 출입구 좌측의 원형 전시 공간에 아파트와 단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추적하고 공공 공간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하태석(DIFFERENTIAL LIFE INTEGRAL

CITY)은 관람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설계 데이터로 연결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전시를 구현하였다.

글 | 이충기(본지 편집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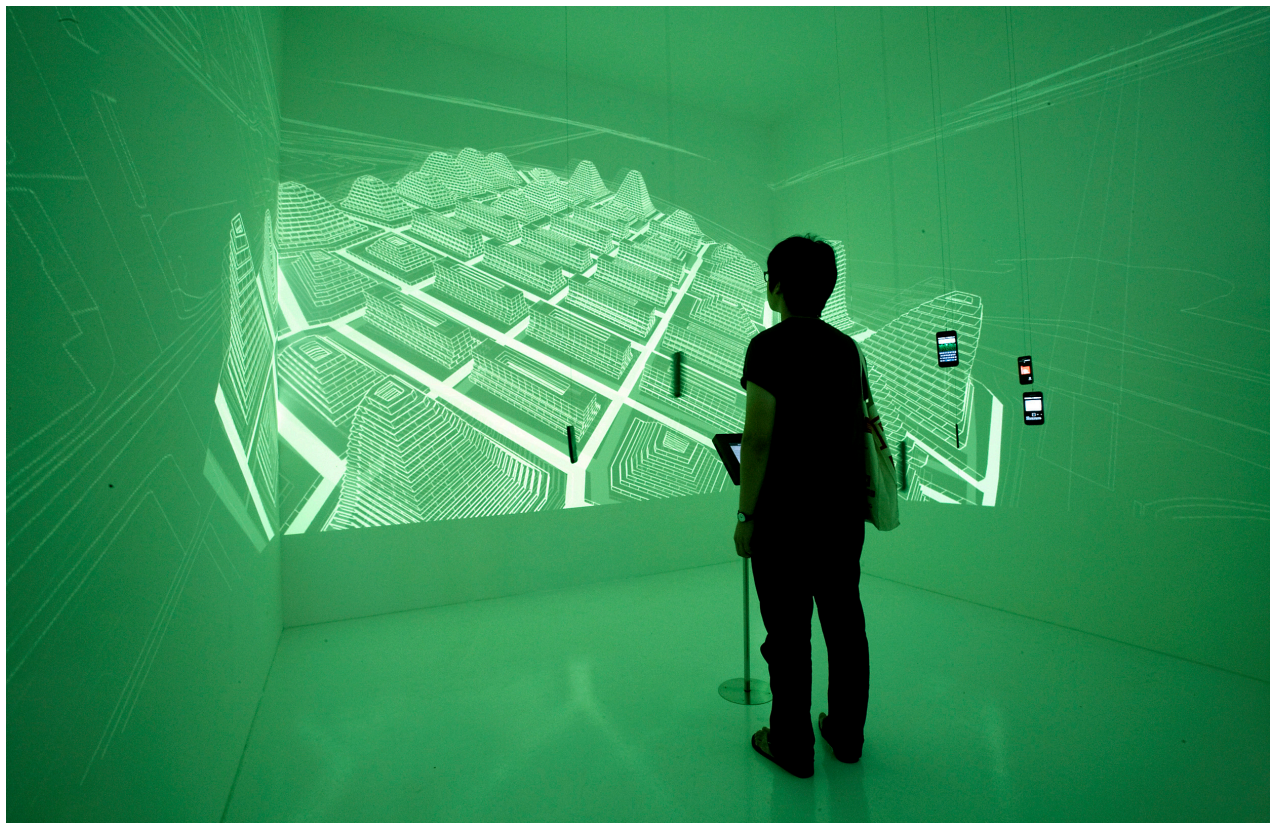


이상구 작품. 모니터 영상과 내수동, 사직동 도면을 한쪽 벽에 전시하여 서울에 남아 있는 옛길 등의 흔적을 보여 주며, 도시 조직의 원형을 통해 생명력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위) 조정구 작품. 채부동의 모형을 전시하며 한옥의 작업과 함께 골목길과 한옥의 공간을 통한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아래) 이충기 작품. 이제는 우리 주거의 문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서울의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다.



(위) 신승수 작품. 원형 공간 밖에 6개의 모니터와 인쇄물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공공 공간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Replacing Public Space을 전시한다. 원형 홀 내부는 이충기 교수와 함께 작업한 2개의 프로젝트가 전시된다.

(아래) 하태석 작품. 스마트폰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전시에 참여하여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 유닛을 만들어내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담아 낸다.



는 책이 없었죠. 최근에 서현 후속작이 나오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문도 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죠. 인문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사회, 그 안에서 공간의 문제가 빠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외국으로, 오지로 떠나는 외국 기행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같이 교통 체증에 시달리면서 매일 보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의 역사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축 도서에 대한 관심의 기본적인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건축은 예술인가’ 하는 근원적 질문에 답하는 서현 교수의 『건축을 묻다』, 건축사의 공백기라고 하는 근대와 현대 사이의 복원을 시도한 『궁궐의 눈물, 백 년의 침묵』 등은 건축 도서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 근원적 성찰과 더불어 우리 건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죠.

▶ ‘건축’보다는 ‘도시’ ㉔ 서현 교수의 책이 세 권 나왔죠. 책을 먼저 1998년에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건축을 묻다』는 그 후에 저자가 10년 간 준비해서 11년째 나온 후속작이에요. 그 사이에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가 1999년에 나왔는데, 『동아일보』에 연재된 글이고 글의 성격이 다르다 생각하죠. 저자는 자신이 하려 했던 것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은 작품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다음 책은 저자의 작품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웃음). 사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가 인문적 건축 이야기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언에 의하면 원고 검토하면서 이것은 분명 새로운 컨셉

트고 잘될 것 같다는 것을 첫 눈에 판단했다고 해요.

원고를 보면서 출간 여부를 검토하는데, 대부분 원고의 완성도와 기존 책과의 차별화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출간 의미가 분명한가를 판단하죠. 효형에서는 건축 도서 출판에서 기본을 ‘건축’보다는 ‘도시’에 두고 있습니다. 문장과 이야기를 구사하는 힘과 글쓰기에 충실한 저자라면 자연히 주목하게 돼요. 사진과 멋진 작품이 쉽게 눈길을 잡아끌지만, 교양서로서의 건축 도서라면 글이 중요하고, 그것을 독자와 시장은 잘 감식해 내고 판단해요. 그리고 효형에서는 해외보다는 국내 건축을, 이론을 소개하기보다 현장에서 두 발로 찾아 다니며 만들어 낸 주제를 발굴하려고 해요. 사라지는 근대 건축물과 도시의 궤적을 기록하거나, 전공자 아닌 일반인, 더 나아가 폭넓은 연령의 독자가 즐길 수 있는 책들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 자라나는 건축 대중 ㉔ 그리고 건축 도서지만, 편집이나 디자인을 현란하게 하거나 제작비를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해요. 원색을 사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만 한정하고, 그림이 들어가더라도 웬만하면 흑백으로 처리를 합니다. 효형에서 지향하는 색깔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맞춰 전체 분위기를 유사하게 가려 해서, 무채색의 담백함을 주기는 하는데 심심해 죽을 지경이죠(웃음). 사실 요즘 트렌드는 10대 후반, 20대를 포괄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민이 되지요. 그 방향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라나는 세대가 있고 건축 대중도 성장해 간다면 젊은 독자층의 눈높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건축 책은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책의 구성 자체가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스타일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인터뷰 3 ▶ 안그래픽스

건축의 텍스트를 따르는 북 디자인

안그래픽스 편집디자인 | 김승은

건축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건축 출판 시장을 잘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건축가의 어떤 책을 안착시킬 것인가에 고민이 더 많아 좋은 책을 선보이는 쪽으로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권 한 권씩 낼 때 마다 수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웃음). 안그래픽스에서 2002년 출간한 김봉렬 저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과 같은 책은 독자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책들이고요, 최근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책을 출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안도의 자전적 에세이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예요.

대개 안그래픽스에서 나오는 책들은 디자인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최근 출간된 건축 도서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죠. 건축가의 작품이나 디자인을 보여 주는 책이 아니라, 건축가의 생각과 생애에 초점을 둔 책들이 많아요. 특히 『트 코르뷔지에의 동방여행』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코르뷔지에의 철학과 인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0대의 코르뷔지에가 어떠한 건축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간들의 기록인 거죠. 1961년에 나왔



← 안그라픽스의 건축 도서들.

지만, 20대 코르뷔지에가 고민한 것들은 현재와도 맥이 닿아 있는 것들이죠. 동서 고금을 망라하는 건축 도서의 고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 **건축의 이미지와 감각을 재현** ㉔ 건축도 디자인의 한 분야라 할 수 있잖아요. 더욱이 안그라픽스의 정체성도 그것에 있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특히 건축 도서에 대한 디자인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북 디자인의 접근 자체도 달리 하는 편이고, 디자인서는 충분히 책의 내용과 기획 방향을 숙지하고 시작을 하지요. 안도의 책은 안도의 건축 작품들을 먼저 이해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가령 안도 다다오는 빛과 그늘, 르 코르뷔지에의 작가의 여정, 그리고 쿠마 겐코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질감을 포착했어요. 특히 이 세 책의 특징은 손에 쉽게 쥐고 읽을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책이라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 표지에 사용된 사진은 일본 사진가 아라키 노부요시의 사진이에요. 한국에서는 2003년 일민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도 있는 작가인데, 사진 자체가 주는 재미를 생각하고 고른 것이죠. 안도 다다오 건축의 모티브인 빛과 그늘,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게릴라 건축가

의 모습을 사진에서는 흑백의 색감과 그 장소가 주는 미세한 공기 질감으로 잘 보여 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흑백 사진이 주는 강렬함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게 띠지인데, 띠지에 한 줄기 빛을 상징하는 대각선의 긴 구멍을 뚫고 그 사이로 안도 다다오의 얼굴이 살짝 보이도록 했어요. 책의 제목이 건축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면, 책의 디자인은 빛과 그늘의 상징적 이미지만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전략이죠.

『자연스러운 건축』은 쿠마 겐코의 초쿠라 광장에 있는 오타쿠니석 철판의 벽면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초쿠라의 광장’은 ‘구멍의 건축’으로 불리는데, 오타쿠니석과 철판을 하나의 직물처럼 조합시켜 바람과 빛이 통하는 큰 구멍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타쿠니석 원래의 질감을 살리고 있고요. 쿠마 겐코도 이 책의 표지 뒷면에 그 벽면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다들 쿠마 겐코의 건축처럼, 평면적인 책의 표지가 숨통이 트이는 디자인이 될 것이라 좋아했지만, 제작 과정이나 책의 실용성을 간파할 수가 없었어요. 아쉽지만 그 대신 지금처럼 구멍 모양대로 ‘압’을 준 디자인이 되었어요. 이 책을 읽는 동안 건축물의 재료가 주는 질감을 느끼며 마치 공간 속을 거닐듯이, 쿠마 겐코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반면 『르 코르뷔지에의 동방여행』은 코르뷔지에가 친구 오귀스트 클립스탱과 함께 보헤미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을 다니면서 쓴 여행 일기인데, 1965년에 첫 출간된 책이에요. 원고는 코르뷔지에가 베를린에 있는 페터 베렌스 사무소에서 설계사로 일하던 1911년에 쓰였던 것이지만, 전쟁 때문에 1954년에야 출간된 책이죠. 책

에서는 ‘여정’이라는 개념을 앞 표지에서는 ‘점’, 뒷 표지에서는 구체화된 ‘타이포그래피’로 표현되었어요.

▶ **독자와의 대화 방법** ㉕ 안그라픽스 책들의 일반적인 특징일 수 있는데, 북 디자인에서 그다지 많은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텍스트가 이미지로 압축돼 표현되는 것이니 내용을 드러내는 요소는 한두 가지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전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문 구성을 포함한 책 전체적인 꼴입니다. 과하지 않고 조용하게 설득력이 있는 대화가 안그라픽스 나름대로 독자와 대화하는 디자인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몇 권의 책으로 안그라픽스에서 나오는 건축 도서에 대한 방향을 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코르뷔지에의 여행 일기와 같은 고전에 속하는 책들과 한국 건축가들의 철학이 담긴 책을 꾸준히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독자와 자연스럽게 편안한, 그래서 솔직한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해요. ㉖

